

국제정치학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3 문. 나폴레옹 전쟁 이후 19세기 초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20세기 초반까지의 유럽 상황을 ‘100년의 평화’ 시기라고 일컫는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협조체제의 형성 의의와 당시 유럽 강대국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2) 1871년 독일 통일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100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을 국제체제, 국가, 개인의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설명하시오. (10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

[제3문 총평]

제3문에서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외교사 문제가 출제되었다. 국제정치경제 문제가 출제될 경우 외교사가 다른 이론과 혼합 출제되어 그 점수 비중이 작아지거나, 2019년의 경우에는 아예 출제되지 않은 바 있는데, 2020년부터 계속 상당한 점수 비중으로 출제되어 오고 있다. 제3문의 세부분제(1)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협조체제의 형성 의의와 당시 강대국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유럽협조체제는 전반부는 비엔나 체제 후반부는 비스마르크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주어진 질문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질서를 규정한 비엔나 체제에 대한 것이다.

비엔나 체제의 형성 의의는 유럽 강대국들 간의 친화적 세력균형, 전후 국경선 확정, 왕정복고의 보수적 유럽질서로 회귀, 영국과 러시아의 지배력 확대, 일시적인 국제협력체제로서의 회의 외교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회의외교는 국제사회의 조직화를 위한 첫 시도로 평가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의 선구적 형태로 보기도 한다. 나아가 국제정치에 있어서 강대국 중심과 이들의 합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제연합의 안정보장이사회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강대국들의 평화유지 방안은 기본적으로 세력균형과 왕정복고(정통주의)의 원칙을 토대로 하면서 주로 회의외교를 통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4국동맹 조약 제6조에 기초한 회의외교는 강대국 군주나 대신들에 의해 정치적, 비정치적 회동을 통해 국제정치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1818년 엑스-라-샤펠 회의, 1819년 트로파우 회의, 1821년 라이바흐 회의, 1822년 베로나 회의 등이 있다.

이 부분은 세계외교사 공부의 앞부분 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외교사 강의 동영상 특강에 잘 요약되어 있어, 해당 부분을 공부한 수험생은 무난한 답안작성이 가능한 주제이다. 비엔나 체제와 회의외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의 예비순환 모의고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제3문의 세부분제(2)는 독일통일에도 불구하고 100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을 국제체제, 국가, 개인의 세 가지 분석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국제정치 연구방법론과 외교사가 혼합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의 분석수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사례 분석에 대해서는 2022년 대비 1순환 및 3순환에서 중복적으로 실시되어 분석수준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강화시켰다.

100년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국제체제 차원의 원인으로는 비엔나 체제에 이어 비스마르크 체제가 다극적 세력균형 체제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다극체제 안정론의 대표적 학자는 모겐소(H. Morgenthau)이다. 그는 다극체제 하에서 국가들 간 주의의 분산으로 긴장완화, 높은 불확실성 하 신중한 정책 추진, 영국과 같은 균형자의 존재로 인해 국제적 안정성이 높다고 보았다. 다극체제 안정론은 유럽질서가 3국동맹 대 3국협상의 양극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고 본다. 다극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2022년 대비 1순환, 3순환 모의고사에서 중복적다루어졌다.

한편, 패권국에 의한 단극체제 안정론도 100년의 평화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특히 비엔나 체제와 비스마르크 체제 기간 중 영국 중심의 일극적 패권질서가 개방적인 자유무역을 증진시킴으로써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주장인데 킨들버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하는 영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대신 중상주의를 내세운 독일의 국력이 신장하여 영국에 도전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고 본다.

100년의 평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석은 개별 강대국의 국가이익과 이에 따른 외교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협조체제 전체 기간을 통하여 유럽 대륙에서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은 해양제국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하였다. 비엔나 체제에서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비스마르크 체제에서는 통일독일이 유럽의 세력균형 나아가 현상유지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다. 특히 통일독일은 유럽 대륙의 안정을 위해 영국의 해양진출을 지지하였고, 보불전쟁 패배 이후 대독복수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프랑스를 달래기 위해 프랑스의 해양진출도 지지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대독복수를 위한 블랑제 운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비스마르크 체제 하에서 좌절되었다. 독일은 3제협상, 독오동맹, 독-오-이 3국동맹,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 등을 통해 독일 중심 유럽 대륙질서에 대한 현상유지를 추구하였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경우 발칸반도 진출에 관심이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현상타파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러시아의 경우 중앙아시아나 극동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다. 결국 강대국들의 유럽 대륙에서 세력균형과 현상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평화를 가능케 하였다.

한편, 국가 내부의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100년 평화의 원인을 일부 논의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나아가 독일에서조차 정치적 민주주의의 점진적 진전에 따른 민주평화론, 또는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모두 왕정체제로 이들 간의 협력적 정체성, 자본주의 경제체제 진전에 따른 자유무역 필요성으로 국제협력을 중시한다는 자본주의 평화론 등으로 설명을 시도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들은 5대 강대국들의 관계를 동시에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00년의 평화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설명은 비엔나 체제와 비스마르크 체제 하에서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비엔나 체제의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히이다. 외교적 역량이 뛰어나면서도 보수반동적인 그의 주도 하에 세력균형 및 구체제로 왕정복고가 비엔나 체제에 수용되었다. 이는 그의 고문이었던 정치사상가 겐츠(F. Gentz)가 조언한 내용을 현실화한 측면이 있다. 비엔나 체제에서 회의외교 채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영국 외상 카슬레이였다. 영국이 유럽대륙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영국 내 여론을 고려한 새로운 구상이었다. 한편, 신성동맹을 제시한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1세도 평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신성동맹이 실효적이지는 못하였지만 기독교 정신에 따른 우애와 단결 그리고 상호원조를 강조하였다.

한편 독일통일 이후 비스마르크 체제 하 유럽의 평화 지속에는 당연히 빌헬름 1세 하 독일의 재상이던 비스마르크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독일통일 이전까지는 보오전쟁, 보불전쟁을 주도하는 등 현상타파적이었지만 독일통일 이후에는 현상유지적으로 변하였다. 그는 독일통일 이후 프랑스를 가상적으로 보고 프랑스의 대독복수를 봉쇄하고자 하였다. 외교관 경력을 가진 그는 3제협상, 독오동맹, 독-오-이 동맹, 독-오-러, 독러 재보장 조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대륙의 세력균형과 현상유지를 이루어냈다. 그는 제국주의적인 팽창에 소극적이었으며, 따라서 패권국이었던 영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비스마르크 체제 하에서 전쟁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불필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럽평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빌헬름 2세가 등장하여 비스마르크가 실각하자 통일독일은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을 파기하고, 유럽 대륙을 넘어 세계팽창을 추구하면서 패권국 영국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독-오-이 3국동맹 대 영-프-러 3국협상의 대결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로써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유럽협조체제 하 100년의 평화에는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와 영국의 카슬레이 그리고 통일독일의 비스마르크가 크게 기여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및 독일통일 이후 각각의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도 외교사 동영상 특강을 통해 요약식으로 매 순환마다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독일통일 이후 비스마르크 체제의 특징과 의

의에 대해서는 2022년 대비 3순환에서 모의고사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학습한 내용들을 국제정치 분석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 있으면, 제3문의 세부문제(2)도 무난히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문 총평 - 결]

결론적으로 2022년 대비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2차시험 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로써, 중요한 수험 학습주제들을 빠짐없이 공부한 경우 합격권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핵심 국제정치학>을 매 순환 빠짐없이 수강한 경우 불의타 없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특히 출제 주제들과 관련된 모의고사들을 꾸준히 치른 경우 답안작성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